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몇년전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확고한 신조를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깊은 감동에 젖어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날의 뜻깊은 가르치심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석의 의지가 어려있었다.